

5·18 30주년 추모교향곡 '부활' 서울 공연 무산

현실의 벽... 서른살 슬픈 5·18

구자범 지휘자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인데... 아쉽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말러 교향곡 '부활' 서울 연주회가 예술의 전당 대관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무산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광주시향은 대관 심의 탈락후 타 공연장을 물색하는 등 서울 연주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공연장을 확보하지 못해 서울연주회를 접을 상황에 놓였다.

'부활' 서울 공연은 구자범 상임 지휘자가 "5·18은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적 사건이므로 서울에서도 연주하는 게 의미있다"는 생각으로 취임 초기부터 구상했던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부활' 공연은 100여명의 광주시향단원과 함께 광주 지역 대학·성인합창단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합창단' 등 모두 518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프

로젝트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대관 신청을 했으나 대관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광주시향이 대관을 신청했던 5월 18일은 제5회 서울 스프링 실내악축제가 대관을 받았다. 예술의 전당 대관 심사는 5명의 외부 전문가 등 7명의 심의위원이 맡았다.

예술의 전당측은 "보통 7~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대관심사의 경우 각각의 심의위원이 가장 적합한 공연을 선정, 다득표를 받은 단체가 대관을 받는다"며 "대부분의 심의위원이 스프링축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 탈락 후 광주시향은 서울 연주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립극장과 서울 명동성당, 성공회대 등 여타 장소를 물색했지만 무대에 설 인원이 500여명에 이르다 보니 장소가 협소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는

'전국교향악 축제'에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부활'을 연주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협연자 동반 등을 요구, 이 역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이번 '부활' 무대가 단순한 지방 연주단체의 연례적인 공연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30주년 무대'라는 점에서 예술의 전당 대관 심의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화예술계 인사 A씨는 "전국민이 5·18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연주회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았는데 아쉽다"며 "꼭 정치적 관단이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대관 탈락을 보니 혹시 앞으로 5·18 관련 대형 문화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향은 오는 5월 17일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부활'을 공연한 후 18일에는 5·18재단

등과 논의를 거쳐 5·18의 상징적 장소인 전남도청이나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향은 6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갖고 '광주만의 공연'을 위한 연습에 들어간다.

구 지휘자는 "5·18 3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행사인 만큼 서울에서도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연주회를 추진했는데 아쉽다"며 "심의 탈락 후 지난해 어떻게든 서울 연주회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찾았으나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활'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작곡한 교향곡 제2번으로 모두 5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합창이 함께하는 5악장의 가사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광주의 그날을 연상시켜 인상적이다. 시민합창단이 부를 한국어 가사는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번역했다.



친구들이 오랜만이야 1일 겨울방학을 마치고 광주에서 가장 먼저 개학한 북구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2학년3반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돔구장 주변 스포츠·관광 타운 조성

"330만㎡에 민자 2조5천억 유치"

박광태 광주시장 밝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돔구장 건설사업과 인근 스포츠·레저·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민간자본 2조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일 시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돔구장 주변 330만㎡ 부지에 민간자본 2조5천억 원을 유치해 스포츠·레저·관광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돔구장 인근 스포츠·레저·관광타운 조성사업비가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서구 중앙공원, 광산구 어등산관광단지 등에 비해 약간 큰 수준이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돔구장 주변에 들어설 ▲남도민속 ▲세계음식 문화타운 ▲세계공연단지 ▲위터파크 등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이날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돔구장 건설비용으로 추정되는 4천200억 원 이외에 시비나 국비가 아닌 2조1천억 원 규

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스포츠·레저·관광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가 첨단산업도시로서 환경·복지·관광도시로 나아가야하며, 돔구장과 그 주변에 들어설 스포츠·레저·관광타운은 이를 위한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며 "이 타운은 김치축제나 비엔날레 등 기존의 관광 인프라와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광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오는 5월 까지 돔구장 사업 제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또 다른 대기업건설사업도 다음주 중 사업제안을 내기로 하면서 돔구장 및 주변 스포츠·레저·관광타운 조성 관련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애초 포스코건설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돔구장 사업에 다른 대기업까지 뛰어들면서 유리한 위치에서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일단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학계, 체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돔구장 건설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돔구장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29일 포스코건설과 돔 야구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만~3만5천 석 규모의 돔구장 건설을 오는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3년 하반기에 완공하기로 했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둔 재산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시장 경선 배심원제 옥신각신

광주 국회의원 회동... 이견만 확인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은태 의원과 이용섭 의원을 제외한 광주 국회의원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논의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범위와 평가 점수 반영 등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이 제기되면서 '광주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시민공천

배심원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김영진, 박주선, 강기정, 조영택, 김재균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시장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가 커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2일 전체 회동을 통해 다시 의견을 모으는 한편, 5

일로 예정된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결과 등 중앙당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현안 일부는 합의했으며 2일 밝힐 예정"이라며 "그러나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만을 나눈 상태로 추후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에서 일부 광주 국회의원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적용되는 전략공천 지역과 배심원단 평가 점수의

경선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적용 지역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한 참석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한 의견 차가 컸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의원들에 따라 크게 달랐다"며 "추후 중앙당의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공천 30% 범주 내에 도입하기로 한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관련, 상당수의 중앙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5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의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9/062-222-8110